

연금 시장 리뷰

경제현안

- 동향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이슈 : 복지의식의 이중성과 '넌프'(Not Out Of My Pocket) 현상

퇴직연금

- 동향 : 무주택 근로자, 주택구입비·전세자금 필요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 이슈 : 은퇴 준비를 위한 머니 코칭
- 퇴직연금통계 : 2012년 2월말 현재

세심록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소비자물가 상승률 19개월 만에 2%대로 하락

-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하면서 2010년 8월 이후 19개월 만에 2%대로 하락
-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불안은 지속:** 신선식품지수가 전년동월대비 4.7% 상승했는데, 품목별로 보면, 농축산물이 3.0%, 전기·수도·가스가 5.7% 각각 상승
- **전반적 생활물가지수는 안정세:**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생활물가지수가 각각 1.9%, 2.0% 상승에 그쳤고, 품목별로도 서비스 요금이 전년동월대비 1.4% 상승에 그침
- 하지만 국제유가의 강세와 농축산물 가격의 급변동이 물가 불안요인으로 지속될 수 있음

○ 금융 동향: G2의 경제지표 호조 등에도 북한 리스크로 금융시장은 혼조세

- 미·중의 경제지표 회복에 따른 글로벌 증시 상승에도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과 국내기업의 실적 부진 등의 리스크가 공존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혼조세를 보임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풍부한 수급 여건과 무디스의 신용등급 전망 상향 조정으로 3월 20일 3.60%에서 4월 3일 현재 3.58%로 강보합
- 원/달러 환율은 3월 20일 1,127원에서 4월 3일 현재 1,122.5원으로 4.5원 하락
- 코스피 지수도 유로존 리스크 완화, 미 경제지표 호조 등 글로벌 증시 상승세로 3월 20일 2,042.2에서 4월 3일 2,049.3으로 7.1p 상승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3월20일	4월3일	
실물 지표	GDP성장률(%)	0.3	6.2	3.6	4.2	3.4	3.4	3.4	-	-
	산업생산(%)	-0.1	16.2	7.0	10.6	7.2	5.3	5.3	-1.9	14.8
	소비자물가(%)	2.8	2.9	4.0	4.5	4.2	4.8	4.2	3.4	3.1
	실업률(%)	3.6	3.7	3.4	4.2	3.4	3.1	3.0	3.5	4.2
	경상수지(억달러)	327.9	282.1	276.5	26.1	54.9	69.0	126.7	-9.7	6.4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4.04	3.72	3.62	3.80	3.68	3.60	3.41	3.60	3.58
	원/달러(원)	1,276.4	1,156.0	1,107.9	1,119.8	1,083.2	1,085.1	1,143.9	1,127.0	1,122.5
	코스피지수(P)	1,682.8	2,051.0	1,825.7	2,106.7	2,100.7	1,769.6	1,825.7	2,042.2	2,049.3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3월 20일자 실물지표는 1월, 4월 3일자는 2월 수치임.

□ 경제 이슈: 복지 의식의 이중성과 '넌프'(Not Out Of My Pocket) 현상

○ 복지 수준에 대한 평가: '보통이다'는 평가가 55.4%로 가장 많았음

- 우리나라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는 '보통'(55.4%)이 가장 많아 대체적으로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나, '충분하다'(8.7%)보다는 '미흡하다'(35.8%)는 평가가 4배 정도 높았음
- 가장 미흡한 서비스는 '일자리'(31.8%) 관련 복지서비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27.6%), '보육'(20.4%)의 순으로 나타남
- 가장 만족스러운 서비스는 '건강'(37.7%) 관련 복지서비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20.2%)', '교육'(17.9%)의 순으로 나타남
-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서비스는 '일자리'(33.0%) 관련 서비스였음. 다음으로, '노인/장애인(25.0%)', '보육'(19.3%)의 순으로 나타나, 앞에서 '가장 미흡한 서비스'에 대한 답변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줌
- '노인/장애인' 서비스는 미흡한 서비스 2위, 만족스러운 서비스 2위, 개선되어야 할 서비스 2위로서 '좋다'는 평가와 '미흡하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 과거에 비하면 좋아졌지만, 여전히 미흡하며, 앞으로 더 개선되어야 한다는 평가로 해석됨

○ 복지국가 비전: 재정 건전성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복지' 선호도 높아

- 지속가능한 복지, 성장하는 복지, 중산층이 튼튼한 복지의 順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재정 건전성과 성장에 기반한 복지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남
-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84.9%에 달함
-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성장하는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75.2%에 달함
-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함께 키우는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68.3%에 달함

○ 복지 현안에 대한 평가: 혜택은 좋지만 포퓰리즘은 경계하는 '이중성'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 공약에 대한 찬성 비율이 64.4%에 달하고, '여야 정치권에 서 제시하는 복지공약은 포퓰리즘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65.6%가 공감한다고 답변하여 복지정책에 대한 '의식의 이중성' 현상이 나타남
-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무상복지' 공약에 대한 찬성 비율이 예상과 달리 높게 나타나 무상 혜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공약은 '포퓰리즘이 맞다'면서 경계하고 있음

○ 복지 재원조달 방안: '나의 비용 부담은 싫다'는 '넬프'(NOOMP) 현상

- 복지 강화에 필요한 재원조달은 '부자증세'(39.2%), '탈세예방'(37.5%), '예산절감'(18.7%), '세율인상'(4.6%)의 順이었음
- 복지 서비스의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복지 재원의 조달에 있어서는 '나의 비용부담은 가장 적게 그리고 가장 나중에' 하겠다는 '넬프'(NOOMP; Not Out Of My Pocket) 현상이 관찰됨

○ 시사점

- 첫째, 우리 '복지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상당히 존재하고, '무상복지' 공약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아, 향후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감안한 복지서비스 강화가 필요함
- 둘째, 가장 미흡하고, 가장 개선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일자리', '노인/장애인', '보육'의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연결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함
 - 사회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복지의 수준도 높이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셋째, 전통적 북유럽식 복지국가와 다른, '새로운 복지국가'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복지, 성장하는 복지, 중산층이 튼튼한 복지에 대한 順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새로운 복지국가 =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 성장하는 복지국가 + 중산층이 튼튼한 복지국가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김동열 수석연구위원(02-2072-6213, dykim@hri.co.kr)

□ **동향: 무주택 근로자, 주택구입비·전세자금 필요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구체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3월 7일(수) 입법예고함.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

- (배경) 그동안 사유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개정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
- (사유)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담보제공 사유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그대로 허용함

※ 퇴직연금 담보제공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또한,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 임금피크제 실시 등의 사유를 추가로 인정

- (유의사항)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주택구입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므로

* 연봉제 및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정산은 법시행 이후에는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이슈 : 은퇴 준비를 위한 머니 코칭

-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문제를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벌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저 무작정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우이다.

“ Hard Work is not the answer”라는 말이 그렇듯 많이 벌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된다. 수입에 비례하여 지출이 증가하는 것이다. 일단 증가된 지출을 줄이는 것은 마치 담배를 끊는 것처럼 어렵다.

- 누군가는 1년에 1억 수입을 올리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수입이 연 1억 이상이라면 상당히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노후는 안정적 일까? 연 1억을 버는 것과 1억을 모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누구나 사회와 직장에서 현명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려 노력한다. 이런 사람들이 돈은 참 어이없게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

- 은퇴 설계. 은퇴견적, 은퇴 명가 등을 주장하며 은퇴마케팅에 주력하려는 금융회사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은퇴는 은퇴준비만 따로 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생활비, 주택, 학비, 결혼비용 등의 엄청난 비용을 다 해결한 후 남은 금액으로 진정 행복해야 할 은퇴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금융 전문가의 계산과 분석을 통해 인생 전반의 자금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은퇴준비의 시작이다

이렇기에 은퇴 준비를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1. 현명하게 지출하고 모으기

경제적 목표 달성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인생의 이벤트에 소요되는 자기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돈을 모으는 행위는 여유자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예정된 지출을 미리 지출하는 개념이므로 저축이 아니라 지출이라 보는 것이 더 적당할 것이다. 선결제를 한다는 생각으로 목적 자기에 대해 명확한 계획이 재테크의 1장 1절이다.

2. 은퇴 준비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은퇴 준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공포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월 3~4백 만원은 있어야 한다고들 말한다. 특히나 젊은 사람에게 은퇴 자금으로 매월 얼마나 필요하겠냐고 물어보면 더 많은 금액을 원한다. 그런 목표는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모든 계획의 실현은 달성 가능성이 높을수록 실행의지가 강해진다. 은퇴 준비는 생각처럼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

3.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요즘 연예인들이 몸짱으로 다시 태어나는 장면을 보곤 합니다. 과연 그들이 혼자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까요? 그래서 헬스 코치처럼 도와주고 자문해 주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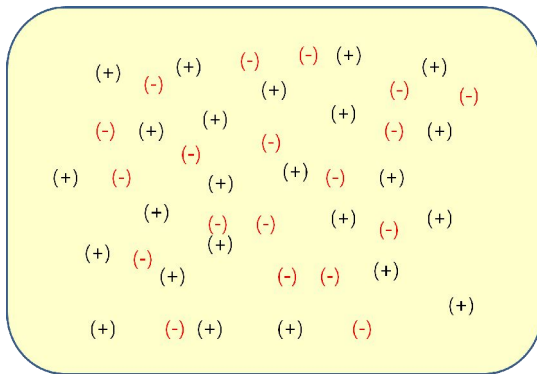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난 은퇴생활, 무엇을 해도 용서가 되는 시간, 인생의 제 3의 절정기는 준비하는 사람들만의 세상 입니다.

□ 은퇴 준비를 위한 머니 코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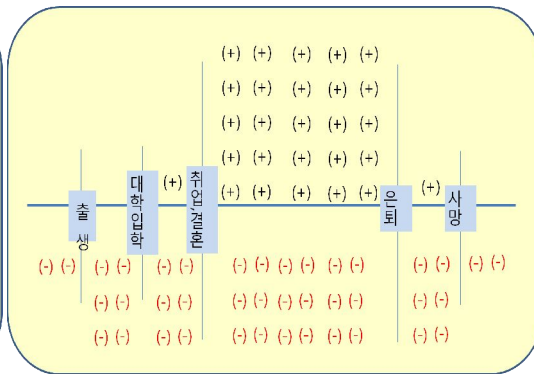
○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문제를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벌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저 무작정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우이다.

- "Hard Work is not the answer"라는 말이 의미하듯
 - 많이 벌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됨. 수입에 비례하여 지출이 증가하는 것임. 일단 증가된 지출을 줄이는 것은 마치 담배를 끊는 것처럼 어려움.
 - 만일 수입의 감소로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참 어렵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일이 벌어짐. 부모님 용돈을 올려드렸다가 내릴 수 없는 것이고, 애들 개인 과외 시키다 종합 학원 보내기 어려운 것과 같음.

<1번 그림>



<2번 그림>



(+)는 수입 (-)는 지출

- 1번 그림처럼 일상에서 수입과 지출이 반복적으로 일어남
 - 이것을 정리해 보면 2번 그림과 같아 짐.
 - 취업 이전과 은퇴 후는 지출의 기간임. 취업에서 은퇴의 기간 30년 동안이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을 결정함.
 - 결국 지출에 대한 통제가 은퇴 준비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은 아님

○ 누군가는 1년에 1억 수입을 올리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임. 경제적 수입이 연 1억 이상이라면 상당히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나 과연 그들의 노후는 안정적일까?

연 1억을 버는 것과 1억을 모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

- 몇 년 전에 금융영업직 중 상위 20%의 고 실적자들을 교육 한적이 있음
 - 돈 많이 벌었는데 많이 모았습니까? 그러면 다들 조용해 짐.
 - 왜 돈을 못 모으는지,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면 이구동성으로 말함. **"그것을 왜 이제야 가르쳐 주냐고요!"**

- 누구나 사회와 직장에서 현명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려 노력함. 이런 사람들이 돈은 참 어이없게 지출하는 경우가 많음.

두 가지 사례를 들어봄

· 사례 1)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떠나며 예산을 어느 정도 정하고 떠난다. 그러나 어김없이 예정 이상의 돈을 쓰고 돌아 오는 자신을 발견하고 마음이 답답해진다.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 까지 도대체 얼마를 더 썼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 사례2)

집에 형광등이 고장 나면 대형 마트로 향한다. 제품의 종류도 많고 간혹 아주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어이없는 광경이 연출된다. 마트에 갈 때는 형광등 사러 갔는데 나올 때는 항상 10만원 이상의 돈을 쓰고 온다. 캐셔가 물건을 찍으면 긴장되기 시작하고 결국 생각했던 금액을 훨씬 웃도는 결제를 하고 나오게 된다. 얼마를 샀는지도 모르고 주워 담은 것이다. 이렇게 주워담은 것 중에서 황당한 소비가 있다. 단순히 싸다는 이유로 주워 담은 물건이다. 그러나 더 황당한 광경은 그 이후에 벌어진다. 캐셔가 물어본다. 일시불로 할까요 할부로 할까요? 쌀 사고 배추 사고 형광등 사고 과자 휴지 등을 샀는데 무슨 할부를 하는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이자 할부 카드를 골라 결제를 한다. 그 얼마 안 되는 포인트는 약착같이 챙긴다. 집으로 돌아 오며 자꾸 영수증에 눈이 간다. "뭔가 잘못됐어 이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는데....."라며 영수증을 분석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영수증을 분석하기 전에 돈에 대한 그리고 지출에 대한 행동을 먼저 분석해야 할 것이다. 대형 마트에는 없는 것이 있다. '시계와 창문' 시계와 창문이 없는 곳이 또 있다. '도박장 카지노' 이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누구나 안다.

이미 필요의 시장은 포화 상태이다. 그래서 기업은 욕망의 시장을 만들었다. 욕망의 시장은 절대 포화되지 않는다. 기업은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생산된 물건을 비싸게 많이 판매 할 수 있을지를 매일 고민한다. 그러나 소비자는 별 생각 없이 어렵게 번 돈을 쉽게 쓰게 된다. 정신 똑 바로 차리지 않으면 당신이 읽은 책 중에 당신의 저금통장이 가장 비참한 책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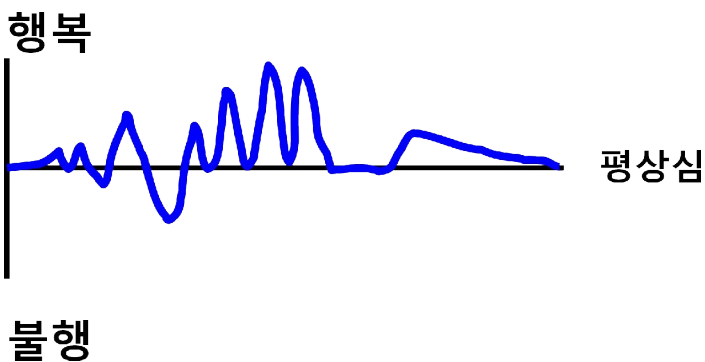
○ 은퇴 설계. 은퇴견적, 은퇴 명가 등을 주장하며 은퇴마케팅에 주력하려는 금융회사들을 많이 보았을 것임. 그러나 은퇴는 은퇴준비만 따로 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님.

- 은퇴는 가장의 총체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 후에 남은 금액으로 사는 것임.
- 어느 부모가 자식 대학 등록금 안 내주고 그 돈으로 자기 은퇴 준비하겠는가? 생활비, 주택, 학비, 결혼비용 등의 엄청난 비용을 다 해결한 후 남은 금액으로 진정 행복해야 할 은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임.

- 이에 금융 전문가의 계산과 분석을 통해 인생 전반의 자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은퇴준비의 시작임
-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몇 %가 인생전반의 자금 계획을 세워 놓고 그것에 맞게 쓰고 모으고 있을 까요?
 - 살면서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지출들이 있는데 얼마만큼의 어떤 종류의 자금이 필요할 까요?
 - 딴 생각하지 않고 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원하는 시기에 정년 퇴직하면 두 부부가 안락하게 생활할 자금이 남아있을 까요? 아닐까요?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모을 까요?
 - 어떻게 모으길래 참 돈 모으기 힘들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대신 계산해주고 조언 해줄 전문가가 필요함

○ 이렇기에 은퇴 준비를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음

1. 현명하게 지출하고 모으기



- 사람들은 일생을 살면서 행복한 순간과 불행한 순간을 반복적으로 겪으며 살아감.
 - 자녀의 출생, 초등학교 입학, 대학 진학 성공, 자녀 군대 입대, 취업, 결혼 이런 것을 누구나 겪게 되는 인생의 공통 이벤트라 함.
 - 그러나 이런 이벤트를 잘 살펴보면 항상 돈이라는 것이 따라 다닌다는 걸 알 수 있음.
 - 행복해야 할 순간에 돈 때문에 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한 순간에 돈 때문에 더 불행해 질 수 있음.
- 결국 경제적 목표 이미 예정 되어 있는 인생의 공통 이벤트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계획과 준비에 의해 달성됨.
 - 그래서 일반적으로 돈을 모으는 행위는 여유자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예정된 지출을 미리 지출하는 개념이므로 저축이 아니라 지출이라 보는 것이 더 적당할 것임.
 - 이렇기에 그저 쓰고 남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선 결제를 한다는 생각으로 결제 항목과 비용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함.
 - 목적 자금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재테크의 1장 1절이다.

-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할 것이다 **“그렇게는 하고 싶는데 돈이 부족해서...”** 과연 우리는 돈이 부족할까?
 - 물론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을 잘못 써서 은퇴준비를 못하게 됨.
- 가계부 쓰는 일이 참 귀찮고 어려운 일이지만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음.
 - 안다고 실행하는 것은 아니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함.
 - 가계부 쓰는 것이 귀찮지만 최소한 내가 지출한 영수증은 모아 올 수 있지 않은가?
 - 쓸 때마다 지갑에 넣어 가지고 오면 됨.
 - 생각 날 때 마다 저금통에 영수증을 넣어서 모은 후 한 달간 모은 영수증을 꺼내어 각 영수증 마다 표시를 함.
 - 꼭 썼어야 했던 돈 ○, 썼어야 했지만 줄일 수 있었던 돈△, 안 썼어도 됐던 돈× 이렇게 표시해 보고 × 표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지를 알게 되면 돈 없다는 말이 더 이상 안 나올 것임.
- 만원의 지출은 만원의 가치와 교환하는 것임.
 - 그러나 지출을 잘 정리하면 만원을 지출하고 더 높은 가치를 얻을 수 있음.

꼭 필요한 것	생존과 직결되는 것
필요한 것	없으면 상당히 불편한 것
있으면 좋은 것	더 좋은 기능의 상품들
없어도 되는 것	사치, 빚, 지출 후 짐이 되는 구입, 또 다른 지출이 요구되는 소비

- 꼭 필요한 것은 없으면 죽던지 자존심 상하는 것, 필요한 것은 없어도 죽지는 않지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것, 있으면 좋은 것은 필요한 것 중에서 더 좋은 기능 더 좋은 디자인의 상품들, 없어도 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러닝머신임.
 -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짐이 되는 구입의 대표적 예임.
 - 러닝머신 3개월 지나면 옷걸이 됨. 참으로 비싼 옷걸이가 되고 마는 것임.
- 은퇴 준비 자금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렇다, 꼭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되는 것임.
 - 이것을 준비하는 것에 아래 하단에 있는 나머지 것들이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임.
 -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는 있으면 좋은 것과 없어도 되는 것에서 일어남.
 - 이것을 가치 우선 순위 지출 법이라 함. 흥청망청 마시는 술 3번만 참으면 부모님 제주도 여행 보내드릴 수 있음.
 - 어느 경우가 더 가치 있는 소비인가?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더 높은 가치를 얻을 수도 아닐 수도 있음

2. 은퇴 준비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 은퇴 준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공포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음.
 - 월 3~4백 만원은 있어야 한다고들 말함.
 - 특히나 젊은 사람에게 은퇴 자금으로 매월 얼마나 필요하겠냐고 물어보면 더 많은 금액을 원함.
 - 그런 목표는 실현 불가능해 보임. 그러나 모든 계획의 실현은 달성 가능성이 높을 수록 실행 의지가 강해짐

- 현재 가치로 월200만원 정도 준비하면 충분히 은퇴 준비를 할 수 있음. 그러나 200만원을 다 준비할 필요는 없음. 월 120만원 정도의 은퇴생활비를 준비하면 월 200만원이 정도의 생활이 가능함.
 - 국민 연금이 현재 매월 65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 국민 연금의 혜택이 아무리 줄어든다 해도 월 50만원을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 할 수 있음
 - 게다가 자식 두 명이 매달 15만원씩 부모님 용돈을 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임
 - 이렇게 되면 준비한 120만원과 국민연금 50만원 자식용돈 30만원을 합하면 200만원이 됨
 - 또한 은퇴 후에 청소하기 힘든 큰집을 공기 좋은 외각으로 줄여서 간다면 매월 30~4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충당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부부가 사는데 그리 큰집은 필요 없음
 - 결국 최소 80만원 정도의 은퇴 생활비를 마련한다면 안정된 노후 생활이 가능해짐
 - 이렇게 필요자금에 대한 규모를 줄여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동기가 강해짐

- 결국 정기예금 이율 2배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장기 펀드 투자 목표액을 계산해 보면 준비해야 할 규모가 산출 될 것임.
 - 앞서 표시한 영수증 중 ×표 인 것의 많은 부분을 은퇴자금 준비로 지출 한다면 은퇴준비는 남의 일만이 아닐 것임.
 - 혹자는 이런 말을 할 것임. “월 200만원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 묻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매월 200만원의 은퇴자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부모님이 매월 200만원의 은퇴자금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습니까?
 - 그제서야 200만원이면 큰돈이라는 것을 알게 됨. 젊은 사람의 200만원과 은퇴하신 분들의 200만원의 가치는 완전히 다름. 60세 이후의 분들에게 매월 200만원의 생활비는 효도하는 자식과 같음.

3.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 요즘 연예인들이 몸짱으로 다시 태어나는 장면을 보곤 함. 과연 그들이 혼자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까요?

- 그래서 헬스 코치처럼 도와주고 자문해 주는 전문가가 필요함.
 - 돈에 대한 개념의 이해를 넘어서 실행 할 수 있는 단계로 가려면?

- 가치 있는 금융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 재정 설계를 하기 위한 복잡한 계산을 하려면?
 - 혼자 하는 외로움과 실행 포기를 막기 위해서는?
 - 너무 나 많은 금융상품 중 나에게 적합한 것을 고르기 위해서는?
 -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계획이 올바르게 진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 위에 적힌 일들은 개인이 혼자 하기 벅차고 곤란한 일들일 것임. 그래서 곁에 금융전문가를 친구로 두어야 함.
- 돈을 버는 것과 모으는 것 늘리는 것은 각기 다른 기능임. 가정과 사회는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을 가르쳤지 어떻게 모으는지는 알려 주지 않은 것 같음.
- 투자나 재테크 등에 대한 정보나 교육은 많지만 과연 '돈'이라는 것은 어떤 생리를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정체가 뭐길래 모으려 해도 잘 모이지 않는지, 이런 류의 이야기는 들어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친구를 곁에 두어야 함
- 그러나 친구를 잘 골라야 함. 신문지상에 보면 재테크에 대한 사례가 종종 실리곤 함.
- 이상한 것은 은행의 전문가는 은행 상품으로 80% 정도를 구성 함. 증권회사도 보험도 마찬가지임. 즉 객관성이 없다는 것임.
 - 동전의 앞면을 보면 뒷면도 보는 것이 객관성이라면 전문가는 자사의 상품 외에도 다른 회사의 상품도 고려하고, 고객의 상황을 최상의 기준으로 하여 분석과 설계를 하는 사람일 것임. 그런 친구를 옆에 두어야 함.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난 은퇴생활, 무엇을 해도 용서가 되는 시간, 인생의 제 3의 절정기는 준비하는 자들의 세상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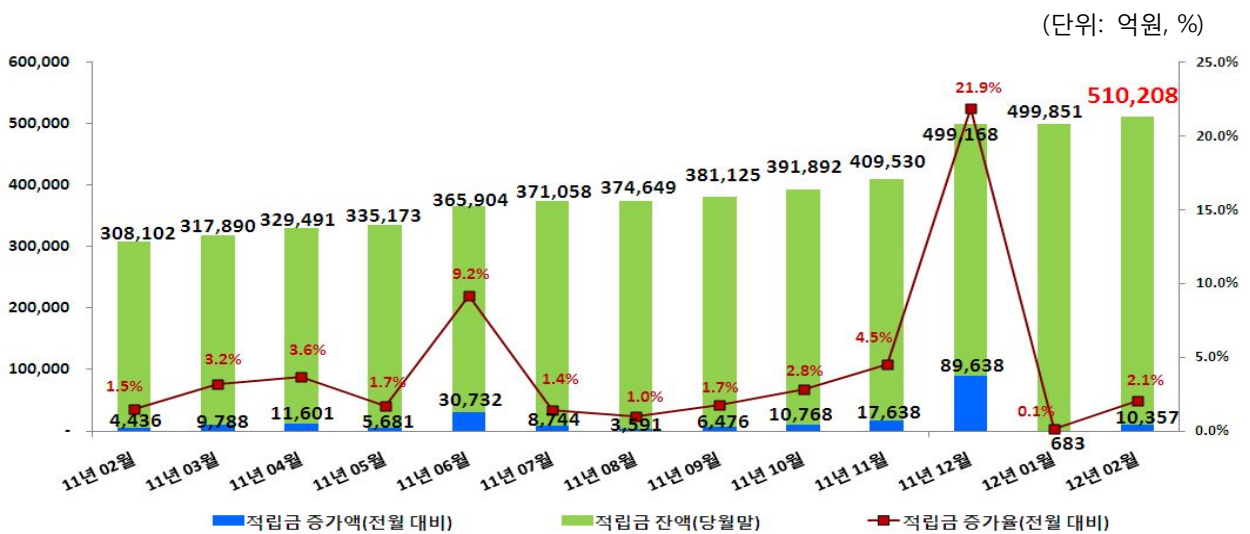
이치 교육컨설팅 대표 김상영(010-6288-8141, kimsy8141@hanmail.net)

□ 퇴직연금통계 (2012. 2월 현재)

○ 적립금 규모

- 2012년 2월 말 현재 적립금액은 51 조 208 억원으로 전월말(49 조 9,851 억원) 대비 2.1% (1 조 357 억원) 증가
 - 기아자동차, 한국수자원공사, 씨게이트코리아, 한국오르본전장 등 대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한 데 기인
- 퇴직금 추계액(133.6 조 추정) 대비 퇴직연금 적립률은 35.2%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



자료: 금융감독원

○ 도입사업장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147,456 개소로 전월말(141,989 개소) 대비 3.9% 증가
 - 총 사업장(1,507,158개소)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은 9.8%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구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499인	500인 이상	합계
(A)도입 사업장수	85,974	38,889	16,437	4,478	713	965	147,456
(B)전체 사업장수	1,277,326	167,033	50,007	10,309	1,363	1,120	1,507,158
도입비율 (A/B, %)	6.7	23.3	32.9	43.4	52.3	86.2	9.8

자료: 금융감독원

□ 洗心錄

□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대인의 지혜서인 <미드라시>에 이런 얘기가 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어느 날 궁중의 보석 세공사를 불러 지시를 내렸다. “내가 항상 지니고 다닐 만한 반지를 하나 만들고 그 반지에 글귀를 새겨 넣어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을 때 그 글귀를 보고 우쭐해 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견디기 힘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주는 글귀여야 한다.” 세공사는 최선을 다해 최고의 반지를 만들었지만 고민에 빠지고 말았다. 어떤 글귀를 새겨야 다윗 왕의 마음에 들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고민을 하다가 지혜롭다는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한참을 생각하던 솔로몬이 말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This too shall pass)’

지금의 이 기쁨과 행복도 곧 지나갈 것이며 지금의 이 슬픔과 고통도 결국은 지나갈 것이므로, 너무 자만하거나 너무 낙담하지 말라는 솔로몬의 넉넉함을 엿볼 수 있다.

화불단행(禍不單行)이란 말이 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이지 재앙이란 늘 겹쳐서 다가온다.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슬픔이 한없이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들을 쓸어가 버리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늘상 마음의 평온이 우리의 일상을 넉넉히 품어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링컨 또한 많은 실패를 경험한 뒤 그의 좌우명을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로 했다. 모든 것을 묵묵히 이겨낸 후 그는 결국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힘든 역경 앞에서 결코 좌절할 필요도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과 용기로 헤쳐 나가면 된다. 삶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묵묵히 나의 생과 함께 걸어가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지금 당장 해결하기에 벅찬 어려움이 있는가? 죽도록 힘든 고통을 떨쳐버릴 수 없는가? 그럼 이렇게 외쳐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간이란 생각하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이 지껄이게 된다.

몽테스키외(1689-1755) : 프랑스 사상가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명지대 교수(영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